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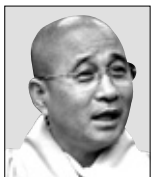
일주문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식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8월 25일 부산에서 장기기증 서약식을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후기 학위 수여식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8월 18일 교내 대강당에서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교구본사 사무장 대만 연수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8월 20~24일 대만 불광산사 등지에서 '교구본사 사무장(종무실장)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4일~11월 4일까지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대중결사 가족과 함께하는 대중결집대회 청정승가대결집사 의장 만초 스님은 8월 27~28일 공주 마곡사와 전통불교 문화원 일대에서 대중결사 가족과 함께하는 대중결집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8월 25일 오후 2시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8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진흥원, 영문 '부디즘 앤 컬처' 창간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일 '부디즘 앤 컬처(Buddhism and Culture)'를 계간으로 창간했다. (02)719-2606

동국대, 전순표 세스코 회장에게 명예박사



동국대(총장 김희욱)가 8월 19일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전순표 세스코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전순표 회장은 1957년 동국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동국대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순표 회장은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2007~2009)을 역임했다.

바로잡습니다

849호 일주문의 평창 월정사 주지 최우정님 스님의 사진이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의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정정 보도 합니다.

보수종교단체 과욕이 문제

사랑의교회 신축 진실 규명 촉구 종자연 정운선 위원장

“사랑의교회는 신축 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했습니다. 종교의 문제를 떠나 시민사회와 주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운선 운영위원장(사진)은 뜨거운 날씨 속에 땀을 흘리면서 사랑의교회 신축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18일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신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건축허가처분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준비위는 이번 감사청구가 상식을 무시한 종교단체나 부패한 공무원들이 더 이상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익은 교회권력이건 사찰, 기업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영역이다”고 지적했다.

정운선 운영위원장과 감사청구 준

비위는 서초구청이 건축허가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일이 6월 17일이지만 서초구청은 이미 2009년부터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공공도로의 지하점용에 대한 범리해석을 의뢰했다.

우리는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9월 말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 4번 출입구 옆에 신축을 진행하면서 인접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을 폐쇄하고, 서초구청이 지하예배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종교단체가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특정 종교시설의 경우 그 사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익은 교회권력이건 사찰, 기업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영역이다”고 지적했다.

정운선 운영위원장과 감사청구 준



출입구가 폐쇄되고 서초역 이용자들이 모두 교회부지로 통하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 안에 구립 유아원이 설립돼 주민들의 종교 자유와 통행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운선 운영위원장은 “이번 일이 진실 규명 없이 끝난다면 사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점용하는 허가들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권력화된 보수종교단체가 과욕을 보이고 거기에 국가 권력이 흔들리면서 발생한 문제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일본은 식민지 지배 반성 않는다”

일본서 소송 준비중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해문·사진)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일본이 약탈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오쿠라 재단을 방문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해문 스님과 중앙신도회 등은 8월 10일 일본 오쿠라 재단을 방문해 평양올리사지석탑을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우리측에 ‘약탈’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양측의 만남은 문화재제자리찾기측의 반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오쿠라 재단이 최근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중앙신도회는 최근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결정되고 오쿠라 재단측이 먼저 면담을 요청함에 따라 재단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해문 스님은

오쿠라재단이 보여준 자세가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오쿠라 호텔 맞은편에는 미술관인 오쿠라 슈코칸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 뒤뜰에는 일본 실업가 오쿠라 가하치로가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 이천에서 가져간 이천오층석탑과 평양올리사지석탑이 있다.

평양올리사지석탑은 고려 시대에 제작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올리사에 있던 것이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 시대 이전시 관고동에 세워진 것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긴 뒤 오쿠라가 1918년 일본으로 반출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중앙신도회는 올해 3월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일본 오쿠라 호텔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올리사지석탑의 반환운동을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오쿠라 호텔측에 2기의 석탑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도쿄 지방



재판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그러나 재단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해문 스님은 “당초 오쿠라 재단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계획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민사 소송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2년은 한국, 2년은 미국서 공부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새크라멘토(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를 방문해 알렉산더 곤잘레스(Alexander Gonzalez) 총장을 만나 모든 학과에 걸친 '2+2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교는 복수학위제, 인턴십,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김영중 총장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립대와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



쁘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2년은 한국에서 2년은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공부하며, 동국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선림원 여름 명상 캠프

조계사(주진 토진)는 청소년과 부부를 대상으로 선림원 주관으로 여름 명상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 '나를 알면 너를 인정해요!'에서는 아토피 곁절처럼 곁집이 둘러싼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름캠프는 조계사 일원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불교대학 교육국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현재 중학생 대상 캠프는 마감된 상태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캠프는 8월 27~28일, 고등학생 대상 캠프는 9월 24~25일 실시

된다.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 캠프는 9월 3~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사 관계자는 “이번 명상캠프를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선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설된 조계사 선림원은 사회지도층 및 전문 경영인을 대상으로 전통수행법인 참선과 이론을 지도하는 과정이다.

문의: (02)720-1390

박기범 기자

김항식 국무총리, 선무도 관람

김항식 국무총리는 8월 12일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를 방문해 선무도 공연을 관람했다.

김 총리는 선무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골굴사는 800만 경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일 2회씩 정기 선무도 공연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단지불회, 백중 맞아 지역민에 장학금

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행모임 '단지불회'는 8월 14일 백중을 맞아 '두 번째 희망나눔기' 행사로 이웃과 함께 하는 백일 기도 동참금 2000만 원을 충북 제천 중고등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지난 3월 충북 제천 보광암에서 수행 정진 중으로 5월 17일부터 '이웃과 함께 하는 1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불회



는 '첫 번째 희망나눔기'로 덕산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축구용품 지원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미륵부처님과 붓다가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영적 가르침과 지구 행성의 미래에 대한 조망!

전 종교인 필독서

마이트레야(彌勒) 붓다의 메시지

지구촌에 계속 빈발하고 있는 심각한 천재지변과 기상이변들! 머지않아 출현할 모든 종교가 고대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영적스승인 미륵불이 말법시대와 급박한 지구의 대변혁기를 맞아 인류에게 계시를 내리다!!

-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인 세계 교사가 긴급히 전하는 가르침과 메시지들 -

<마이트레야(Maitreya)>란 본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서 불교에서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지상에 출현해 증생들을 구원하기로 예언돼 있는 미륵(彌勒) 부처님을 뜻한다. 장차 지상에 도래할 구원불(救度佛)이자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에 관한 내용은 '중일 아함경'이나 '미륵 삼부경(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대성불경)' 등의 불교 경전들에 실려져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 지구의 대변혁기를 맞아 이 시대의 우리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가능한 이유는 1980년대 이래 서구에서 활성화된 '채널링(Channeling)'이라는 영적교신 방법을 통해서이다. 미륵 부처님은 이 책에서 평이한 언어를 통해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에서부터 영적입문의 길, 깨달음, 현 지구의 상황과 차원상승 문제, 창조적 근원과 천상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구의 현 <행성 로고스>인 석가모니 붓다의 심오한 메시지도 첨부돼 있다

“이 지구 행성은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 행성은 인간에 의해 강탈당하고 약탈되고 황폐화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틀림없이 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바다와 육지, 대기는 오염되고 유독 성분이 가득하다. 인류도 거기에 중독되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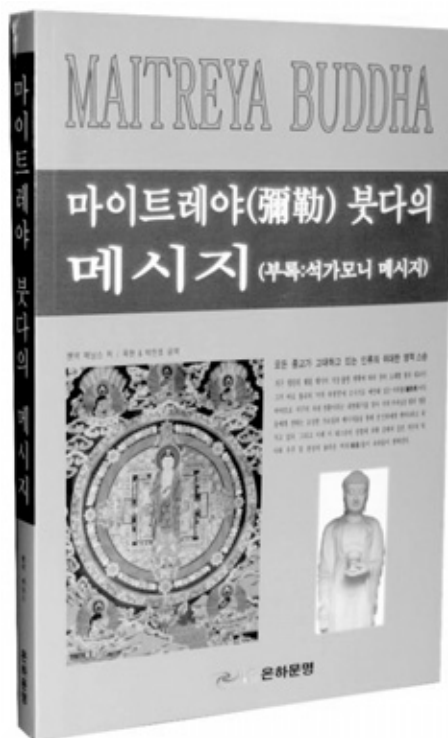
게다가 인류는 “개가 개를 먹는” 3차원의 의식(意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적 의식은 경쟁하고 비교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매달려 있다. 마치 공급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부 9장에서 -

고대 마이어에언이 지정한 2012년! 지구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오는가? 2012 지구 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서기 2012년 12월 21일, 동지(冬至)가 마지막 날로 끝나 있는 04여년의 비월은 양산악기 13의 핵은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을 중보의 천상에서 오는 영적 계시를 통해 2012년에 있게 될 지구의 인류의 대변혁을 단행할 계기로 조성되고 있다. 2012년의 문명은 인류의 원유가 멸망하는 시, 생존하는 인류의 이번 생의 도사의 문명이 된다. 여기에는 유혹적인 천왕의 주기에 관련된 인류의 영적진화 문명이 깊이 연결된 있음을 간파하는 안 된다. 다가오는 지구적 차원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광범 거이드북. 朴燦鎭 지음 / 신국판 / 20,000원



도서출판 은하문명

TEL 02)737-8436, FAX 02)737-8486 (www.ufogalaxy.co.kr)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